

2면으로 기사가 이어집니다

생명의 말씀



안정섭 목사

· (사)한국기독교교회계교단 협의회 대표회장
· 평안교회 담임

본문 이사야 60장 1-3절에는 유대백성들에게 소망과 환희를 주는 그라한 단어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1) 일어나라, 2) 빛을 발하라, 3) 여호와와 영광입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 희망적이며 환한 믿음이 모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면 그것은 병이 나았다는 표시입니다. 간혹에 간헐적 자가 일어나면 해방됨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면 다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빛을 발하라”라는 것은 어둠이 물러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둠은 죄의 암입니다. 잠복합니다. 죽습니다. 악입니다. 그러나 빛은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구원입니다. 평화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을 발합니다.

“여호와와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했을 때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발하여 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도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라한 어둠이 물러가고 나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리라”는 뜻입니다.

1.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보고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와하여 일어났습니다. 나니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일어나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났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 장사한지 나흘이 되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십시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하여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제와 같은 죽은 신령에서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2.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영육 간에 병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병든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은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불평의 병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운운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3.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장자는 영과 육과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리고 하는 나니에는로 가지 아나하고 영혼으로 내리기로 가는 배를 타고는 배 밑중으로 내려가 잠을 지고 있었습니까. 그때 풍랑을 만나 선원들이 요나에게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을 나니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배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잠을 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한탄하지 말고 이때에 우리는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결언

요수절 다락방의 성경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잃은 열실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장자는 자들을 깨워서 살리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정

CTS기독교TV 최현탁 신임 사장



CTS기독교TV(회장 김경환)는 지난 3월 10일(목) 제109차 이사회를 열고, 최현탁 장로(목동제일교회)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 결의했다. 1995년 CTS에 입사한 최현탁 사장은 공적 출신 최초로 사장에 올랐다. 최현탁 사장은 1995년 CTS 공채 1기로 입사해 주요 보직을 거쳐 제작 부문 차장사 ‘CTS N’ 대표이사 겸 사장을 역임했다.

게르성진 건축, 몽골기독교총연합회



몽골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동진)는 지난 3월 23일(수) 총회에서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지형은 목사는 지난 3월 23일(수) 총회에서 지형은 목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지형은 목사는 지난 3월 23일(수) 총회에서 지형은 목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기아대척 이사장에 지형은 목사



국내 최초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전구 기아대척’(회장 유원식)은 지난 3월 23일(수) 총회에서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기아대척은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기아대척 본부에서 ‘이사장 취임식’을 갖고 코로나19 전황에 기아대척이 창의적으로 사역을 열거할 것을 다짐했다.

한동대, 신용보증기금 MOU 체결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가 지난 3월 22일(목) 한동대에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창업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도성 한동대학교 총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 창업 기업 추천과 금융·비금융 지원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논평

한국교회연회

역사는 사람을 평가하고 심판한다

역사는 사람을 평가하고 심판한다. 큰 권력이나 큰 힘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로 심판하게 된다. 우리나라 19대 대통령의 임기도 불과 한 달 정도 남았다. 그에 대한 평가는 제20대 대선으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났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 부인에 대한 실종설과 잡음이 있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 하나는 과도한 해외여행과 또 하나는 호사롭게 일했던 웃음이 국민의 세금에서 부담하게 지불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너무 따지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반응도 있다.

이번 논란 자체가 부부싸움 일이다. 대통령도 그 부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 공개되는 것이 일리이다. 또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가족생활비는 월급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고, 특수동행비에 대한 부당한 공개도 전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난 2018년 시민단체로부터 불거져 나왔는데도 청와대 쪽에서는 미미적인 모습이었다. 심지어 지난 달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가 낸 의견서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에서, 대통령 부인의 옷값 공개는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 고 판시했는데도 청와대는 항소를 해서 의견비용 공개를 기피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 문해와 관련하여 29일 입장을 발표했는데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했다 고 하여 정부 예산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공식 의사 관련 특별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는 답변 내용도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사비로 부담했다’는 말도 한다.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부분 참여했는데 28번에 걸쳐 46개국을 방문했다고 한다. 그중에는 세계적인 관광지 탐방이 들어간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의 타지마할과 후마юн 묘지, 체코의 프라하, 베트남의 호이안, 바티칸의 성페트로성당,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핑크스, 노르망디의 피로르 등이 포함된다.

심지어 노르웨이를 방문할 당시 전 김

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별세로 K팝 공연을 관람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관람했고, 당시 항공기에서는 유람선이 침몰해 한국인을 포함하여 사망자 수백명을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짧은 순방 시간을 쪼개서 유명한 미술관까지 관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대 대통령 부인들은 해외에 나가면 공관의 부인들과 가족들을 만나 격려하고 해외 임원들을 만나거나 그 나라의 복지시설을 둘러보는 등의 행보를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지금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고, 청와대도 뻔뻔하고 당당하다면 진작에 소상하게 내막을 밝혀내 되는데 처음에는 ‘국가 기밀’ 운운하면서 국민들

의 의견을 잠꼬대하려고 한 것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도 국민이며, 알바이트근직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했다면, 그것이 정당하고 뻔뻔해야 한다.

국민들은 코로나로 고통받고 죽어가는데, 1년에 평균 6-6억여명 해외 순방길에서 관광을 즐기는 모습, 생활비에서 웃음을 사용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것은, 국민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물러났을 때, 역사의 심판에서, 국민들의 평가에서 환영을 받는 것을 보고 싶다. 이제 국민들도 물러나는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자비한 비난과 흠집을 찾기보다 애우를 해 주고, 이 문제로 국민들 간에도 분열 현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3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3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수 : ① 일시: 2022. 8. 31(수)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 자료실 → 서식다운로드 → 교단서식 →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 2부 작성 →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임원회 심의 →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제15호 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2. 9. 15(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2. 9. 29(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22. 8. 31(화)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3. 2. 6(월)~7(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김영준

반대는 혐오가 아닙니다!

동성애도 그여 좋다게 해야 평등이파! 나라양반마썸!

제주도의회는 주민조례청구, 학생인권조례반대서명 8880명!
양성평등 개정안반대 9000명 반대의견 묵살하고 악법 졸속통과시키는 도민역차별 중단하라!

도의회는 반대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나쁜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

표현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위
'혐오표현'이라고 주장한 발언의 예

- 퀴어축제 거부 권리도 존중
- 퀴어축제 개최 반대 성명서 발표
-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모든 반대는
다 금지된다!
알았지?ㅋㅋ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문제점

발의와 이에 동의한 도의원들은 다음 주 화요일(29일) 상임위와 수요일(30일)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다수를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조례이다. 도민반대의견묵살 토론화생략 !! 무조건 통과시도!

1 표현의 자유 제한

헌법상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제21조)를 제한할 수 있다.
법률도 아닌 조례를 통하여 '혐오'를 명분으로 대다수의
국민의 표현을 자유를 제한한다.

2 인권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한다.

사람의 모든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 인권은 보편적 인권도
있지만 상대적 인권도 있다. 특정 집단을 보호하겠다는
상대적 인권의 논리로 보편적 인권인 자유(표현, 사상, 종교
등)를 침해한다.

3 혐오의 기준이 없다.

조례(법)의 제정은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무엇이 혐오가
되는지 객관적 기준이 없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혐오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 국가 출신이 본인의 사상으로
특별한 행동을 하여 우리 사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4 법적 질서와 근거를 무시하고 있다.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번 조례안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윤리적 근거 뿐 아니라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5 특정 단체에 연구용역비 8천만원을 주기 위한 조례이다.

총 예산 사용에 대하여 계획 수립에 5천, 조사에 3천만원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조례의 실질적인 목적보다 특정 조직과
인원에 대하여 연구와 조사를 명목으로 주민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6 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게된다

동성애퀴어축제 반대하면 혐오?

3월 29일(화)
상임위에서 다들
예정이오니,
호소바람

상임위원

조례 발의자
(상임위 제외)

고현수(비례) <대표 발의> 064-741-1924, 741-1987 | 이상봉(제주 노형동) <상임위 위원장, 공동 발의> 064-741-1830, 741-1822 | 강민숙(비례) <상임위 부위원장, 공동 발의> 064-741-1955, 741-1989
강성민(제주 이도2) <공동 발의> 064-741-1973, 741-1988 | 강철남(제주 연동) 064-741-1921, 741-1987 | 문중태(제주 일도1,이도1,건입) <공동 발의> 064-741-1942, 741-1950
이경용(서귀포 서홍동, 대륜동) 064-741-1925, 064-741-1930

강성의(제주 화북) 064-741-1850, 741-1842 | 고은실(비례) 064-741-1945, 741-1960 | 김경학(제주 구좌읍 우도면) 064-741-1932, 741-1950 | 문경운(비례) 064-741-1963, 741-1885
송영훈(서귀포 남원) 064-741-1880, 741-1968 | 송왕권(제주 외도·이호·도두) 064-741-1933, 741-1930 | 양영식(제주 연동) 064-741-1840, 741-1842 | 정민구(제주 삼도1·2) 064-741-1800, 741-1802
홍명환(제주 이도2) 064-741-1962, 741-1883

표현의 자유 말살! 민주주의 파괴!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조례안을 철회하라!!!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제주도민연대·제주교육학부모연대·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4.3사건 재정립시민연대·제주4.3경찰유족회·사랑의재능기부회·부정선거방지제주도위원회

